

밥 먹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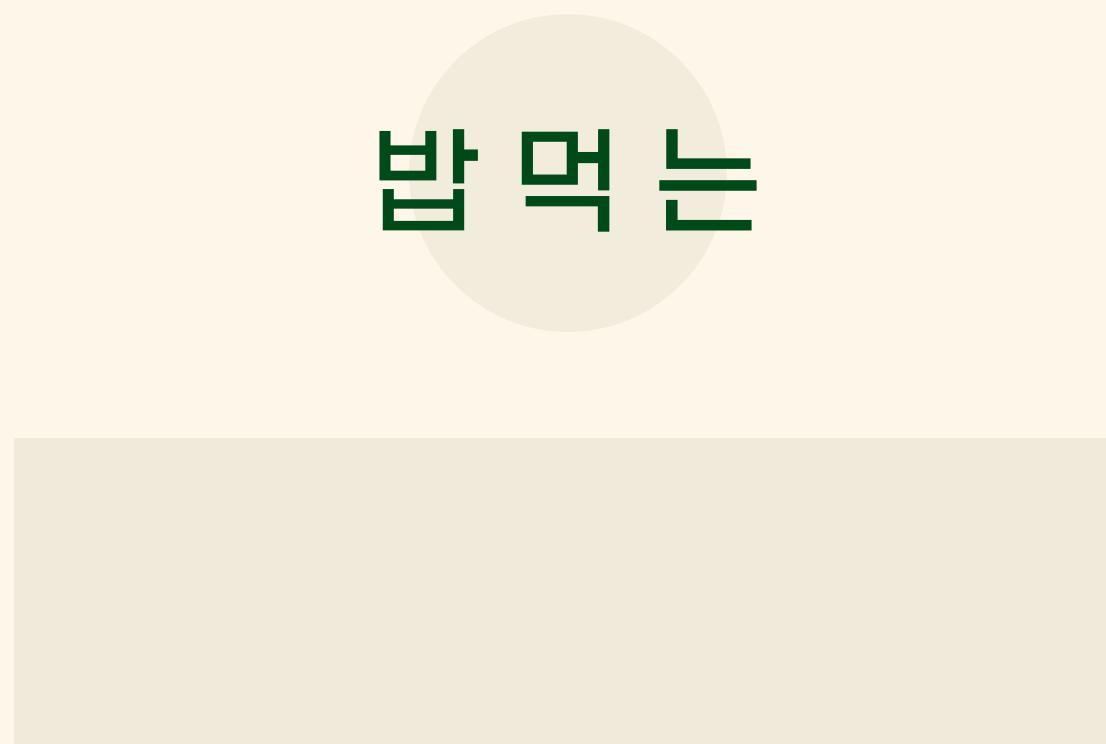


사이

본그룹 사회공헌
2022 애뉴얼 리포트



Cover Story 정성으로 차린 식탁에 마주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기호 안에 은유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사
이

본그룹 사회공헌
2022 애뉴얼 리포트



CONTENTS

06 어르신 본죽 왔어요	46 함께하는 나눔
08 한눈에 보는 나눔	48 창립 20주년 나눔
10 행복 우체통	50 지역사회 나눔
14 나눔 인터뷰	56 응원 배달 캠페인
16 속편한 나눔	57 친환경 캠페인
18 본도시락, 생일은 특별하게	58 우리는 본죽인
20 한눈에 보는 나눔	60 본죽인 나눔 스토리
22 행복 우체통	64 한마음 행복나누미 캠페인
24 나눔 인터뷰	65 본사모 사랑 죽 릴레이 캠페인
26 특별한 나눔	66 세상의 온기와 희망, 본사랑
28 우리동네 본설렁탕 나눔 챌린지	68 해외 사랑 나눔
30 한눈에 보는 나눔	69 국내 사랑 나눔
32 행복 우체통	70 22년 사회공헌 하이라이트
34 나눔 인터뷰	
36 행복냠냠 베이비본죽	
38 한눈에 보는 나눔	
40 행복 우체통	
41 긍정양육 캠페인	
42 아강아장 지지특공대	



사회공헌 유튜브 채널 꼬르륵

밥을 먹는 사이에
서로의 안부를 물고
관심사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밥 먹는 사이
입니다

어르신 본죽 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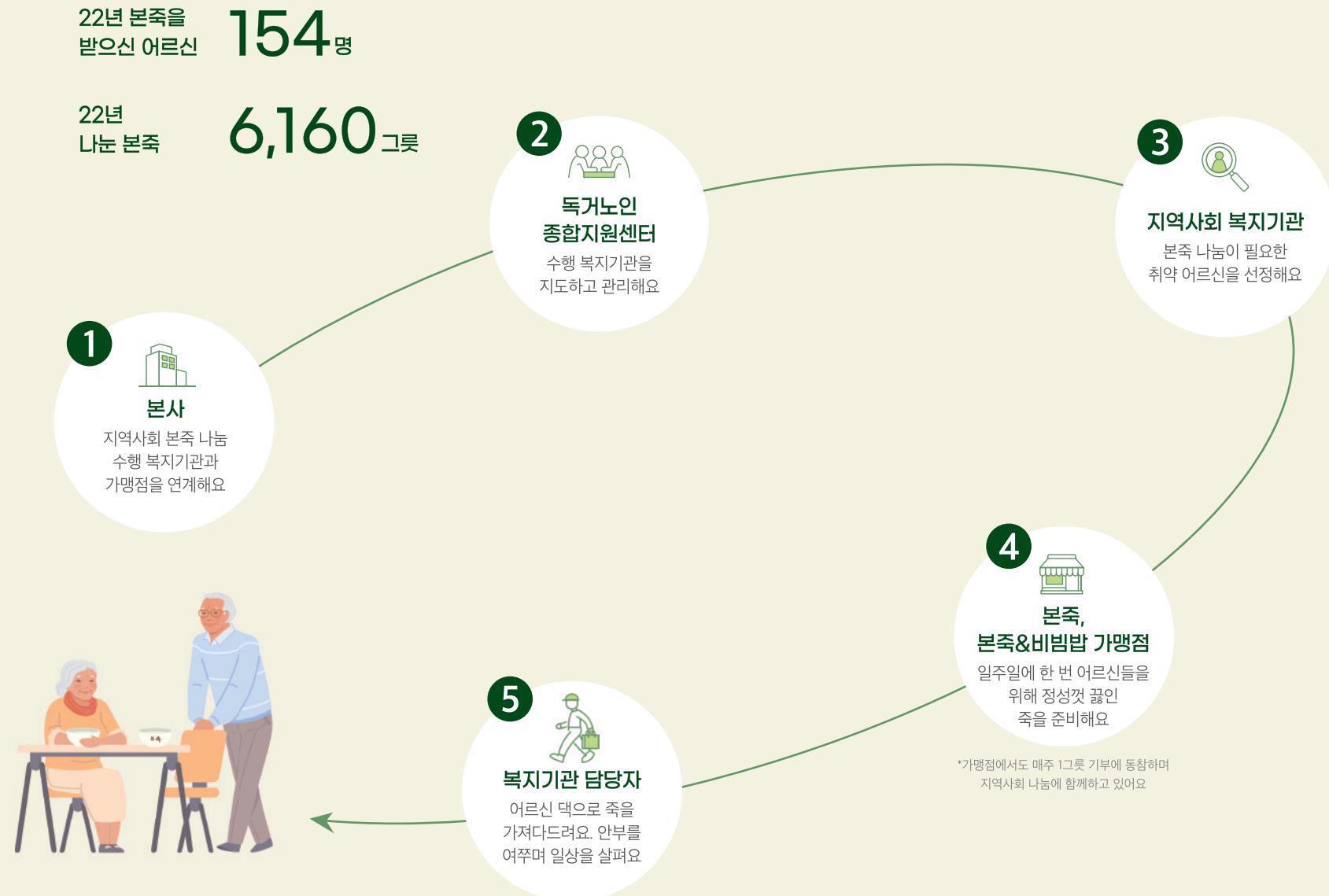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하고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죽을 나눕니다.

죽을 전달하며 잘 지내시는지
일상에 어려움은 있으신지
안부를 여쭈며 마음을 나눕니다.



'어르신 본죽 왔어요'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수의 기저질환, 소화 · 저작 기능 저하로 인한 결식, 영양결핍 등의 건강 문제와 더불어 가족, 이웃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매주 찾아가는 본죽은 영양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전합니다.



**2022년 함께한
복지기관과 가맹점을
소개합니다**

복지기관

- 고성지역자활센터
- 금성노인복지센터
- 노인의전화재가노인돌봄센터
- 동행노인복지센터
-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 부곡종합사회복지관
- 부평구노인복지관
- 선한이웃재가노인돌봄센터
- 아산종합사회복지관
- 여수시노인복지관
- 울산노인요양원
-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 창녕군새누리노인종합센터
- 평화사회복지관

가맹점

- 본죽 대구팔달시장점
- 본죽 대전판암점
- 본죽 부천라일락마을점
- 본죽 안산부곡점
- 본죽 양산통도사점
- 본죽 충북음성점
- 본죽&비빔밥 경남고성점
- 본죽&비빔밥 대구수성교점
- 본죽&비빔밥 목동사거리점
- 본죽&비빔밥 여수소호점
- 본죽&비빔밥 온양온천역점
- 본죽&비빔밥 익산중앙점
- 본죽&비빔밥 전주객사점
- 본죽&비빔밥 창녕남지점

본죽 나눔 현장에서 보내온 이야기를 전해요



마음의 빗장을 허문 본죽의 미소

2021년 어느 날 추천을 받아 만나 뵙고 섬기게 된 85세 김상희(가명) 어르신, 처음 어르신을 뵙 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한 현기증이 날 정도로 당혹스럽던 기억이 납니다. 낡은 아파트 지하에 거주하시며 혼자의 힘으로는 거동조차 어려워 팔로 다리를 끄시며 겨우겨우 실내에서만 이동하시는 모습과 팔꿈치와 무릎에 박힌 굳은살, 제때 식사를 하실 생각조차 하지 않으실 만큼 자신을 훌대하던 모습, “아야 아야”를 반복하시면서도 병원에 가시지 못하는 처지,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은 사람들과의 견고한 벽을 치게 만들어 경계를 허물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하나도 손을 대지 못하게 불같이 역정을 내시는 어르신을 대하기란 무척 어려웠답니다.

귀까지 어두우셔서 전화 안부가 힘들어 전화 안부가 있는 날에는 어르신이 반기지 않아도 무조건 달려가기를 수개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시는 어르신께 가장 어려웠던 건 지난겨울 추위와 사람에 대한 배고픔, 생리적 배고픔이 아닌가 하고 안타까워 마음을 동동거리던 중, 겨우내 얼었던 대지에 생명이 움트는 4월, 본아이에프와 아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본죽 후원을 하신다면 대상자 한 분을 추천하라 하시더군요. 주저 없이 어르신을 추천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성 담긴 죽으로 어르신의 마음에 따뜻함을 채워드리고 싶었고 소외되고 있다 인식하고 계신 어르신께 사회의 일원으로 동행하고 있다 위로를 드리고 힘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매주 화요일의 기분 좋은 죽 배달... 죽이 담긴 종이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이불 위에서 허겁지겁 드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의 만감이 오납니다. 맛있게 달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기도

글 | 최두선 생활지원사

기관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수행기관 아산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어르신께 더 많은 것을 해드릴 수 없는 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연신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복 받으세요.”를 반복하시다 제 볼을 쓰다듬으며 끌어안고 “우리 딸보다 이들보다 더 낫다. 사랑한다. 선생님은 나를 살리려고 온 사람이다.” 하시는 어르신을 뵙 때 위로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봄이 가고 농익은 여름, 벌써 5개월째군요. 오늘도 저는 감사한 후원의 배달꾼이 되어 어르신께 죽을 차려드렸습니다.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 없던 어르신의 얼굴에 미소가 생겨나고 경계가 심해서 다가서기조차 어렵던 어르신이 내 손을 덥석 잡아 얼굴에 비비기까지 하시는 요즘, 죽 한 그릇에 오롯이 담긴 감사와 감동으로 늘 마지막을 말씀하시던 오늘의 어르신은 흐릿해진 이성보다 관심과 동행으로 따스한 내일을 손가락을 꼽으며 기대하며 스스로 세상을 향해 닫아걸었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계십니다.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북풍한설 몰아치는 겨울이 돌아와도 우리 어르신은 오늘의 온기로 봄을 안은 헛살처럼 마음 따스하실 테지요. 제 대상자 어르신께 삶에 대한 야무진 끈을 이어주시고 제게 또 한 번 제 미력한 걸음에 힘을 낼 계기를 주신 본아이에프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본죽&비빔밥 은양온천역점 그리고 우리 기관인 아산종합사회복지관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나는 말기 암 환자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생각하고 치료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슬픔과 원망으로 흘려보냈습니다. 누구도 아픈 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 보다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느니 데려가시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이 났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3월 어느 날에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간절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하루 건강일기를 써보기로 했는데 저랑 같이 연말까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간절히 이야기 하는 그 눈빛에 그렇게 하자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권의 색색깔의 책을 가지고 시작한 하루 건강일기를 시작하면서 1년 뒤의 내 모습을 상상해 보며 그림을 그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한 시간 뒤도,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내 하루인데 1년 뒤 건강해진 모습을 생각하자니 면 남의 얘기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 건강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화요일이 되자 ‘본죽에서 건강 잘챙기시고 얼른 나오시라고 죽을 후원해 주신다’라며 영양죽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끼니마다 밥을 넘기기 힘들어 맨밥에 물을 맡아 넘기곤 했는데 정성스레 만들어진 죽을 보니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2번에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서 주신 죽은 입맛에 꼭 맞았습니다. 약을 먹기 위해 억지로 물에 만 밥을 먹었었는데 부드러운 죽은 넘기기도 쉽고 소화도 잘되어 먹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은 “오로지 어르신 건강해지시는 것이 저도, 우리 기관도, 후원해 주시는 본죽에서도, 나라에서도 1등의 목표예요~” 하며 죽을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 반찬도 올려주고 물도 떼 주며 살뜰히 챙겨주었습니다. 매주 다른 메뉴로 맛있는 죽을 먹게 되는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예쁜 마음이 들어있는 죽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들도 포기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던 나를 이처럼 걱정해 주고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원망 속에 하루를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과 체조도 하고 집 근처 산책도 하고 동화책도 같이 읽고 색칠공부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내 보자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방문하시지 못하는 날에도 전화를 걸어주어서 오늘은 무엇을 먹었는지, 건강은 어떠한지, 숙제는 잘했는지 물어보니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게 되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면서 어떻게 하루를 보냈나 돌아보게 되면서 나를 챙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본죽의 회사 직원들이 어르신들 몸에 잘 맞는 안마봉을 직접 손수 만들었다면서 좋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내보자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향기가 나는 천안마봉을 죽과 같이 생활지원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제일 행복했던 날이었습니다. 암 투병으로 살이 많이 빠져 손을 대기만 해도 아픈 몸이었는데 생활지원사가 천안마봉으로 살살 두드려주니 정말 아픈 몸이 시원해지며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니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서로 등을 내주며 “선생님이 더 고생했으니 내가 안마해 줄게요.” 하고 “어르신 손 안 닿는 곳까지 제가 곁에 있는 동안에는 제가 해드릴게요.” 하여 안마봉을 열심히 두드리는 동안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끼의 죽을 매번 챙겨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세심하게 직접 만든 안마봉을 주셔서 아픈 몸도 힘들었던 마음도 낫게 해주니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어 미안하고 죄송하다 이야기했더니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어르신이 건강하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이 최고의 보답이고 선물입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내 몸 건강도 잘 챙기고 하루를 건강히 즐겁게 보내는 것이 보답하는 길이라면 이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혼자 하는 거라면 힘들어 포기하겠지만 내 옆에는 생활지원사 선생님도 있고 나를 걱정해 주고 보살펴주는 우리 기관도 있고 매주 죽과 함께 따뜻한 희망을 주는 본죽 후원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글 | 정운강(가명) 어르신

기관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수행기관 울산노인요양원

다회용 용기를 활용해 본죽을 나누었어요

본죽&비빔밥 전주객사점, 평화사회복지관과
본죽 대구팔달시장점, 노인의전화재가노인돌봄센터는
지난 한 해 다회용 용기를 활용해 어르신들에게
본죽을 나누었습니다.

그중 전주의 평화사회복지관에 직접 방문해 친환경
수행 본죽 나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회용 용기를 활용한 본죽 나눔은 어떠셨나요?

기존에 사용하던 용기는 물론 잘 세척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로 제작되어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본죽을 지원받고 있는 대다수 대상자는 고령의 어르신들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용기를 바로 버리시거나 세척하여 쓸아놓으시는 등 그에 따른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회용 용기를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 그런 용기의 쓰레기 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회용 용기와 보온 기방을 함께 사용하여 본죽을 수령하여 대상자 가정에 전달하는 시간까지 그 운기를 온전히 느끼실 수 있도록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친환경 수행에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다 보니 대상자의 개인 용기에 죽을 옮겨 담고 다시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들이 새롭게 생겨난다는 점에서 사업 수행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점도 죽을 전달하고 대상자의 개인 용기에 옮기는 과정 속에서 대상자와 짧지만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속에서 적지 않은 기간이 흘러 지금은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평화사회복지관 이세영 사회복지사



쪽방촌 주민분들에게 본죽은 늘 가까운 이웃이랍니다

서울 동대문 쪽방촌에는 330여 개의 쪽방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4월부터 본그룹 임직원들은 매월 쪽방촌 주민분들을 위한 섬김의 날 봉사활동으로 죽과 도시락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봉사는 종료되었지만 매월 어르신 본죽 나눔을 통해 본죽을 나누고 있습니다.



쪽방촌은 어떤 곳인가요?

쪽방촌은 쪽방이 밀집된 지역을 부르는 말입니다. 서울시에는 종로, 남대문, 용산, 영등포, 동대문 쪽방촌이 있는데 우리 등대교회는 동대문 쪽방촌을 섬기고 있어요. 이곳에는 330여 개의 쪽방이 있고 200여 명의 주민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쪽방은 좁게는 0.5평, 넓게는 1.2평의 좁은 1칸의 방입니다. 이곳에는 비록 화장실과 부엌, 샤워시설은 없지만 보증금 없이 월 10~2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서 도시빈민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습니다.

본죽 나눔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2010년 4월부터 매월 본죽 임직원분들이 쪽방 주민분들을 위해 본죽과 도시락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쪽방에 직접 방문해 전달을 해드렸어요. 어느 해에는 직원들이 매주 화요일 퇴근하고 본죽을 포장해와서 쪽방에 직접 방문해서 죽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때에는 잠깐이지만 좁은 방에 앉아 맙벗도 해드리고 했습니다. 지난 12년 8개월간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쪽방촌 주민들에게 본죽은 늘 가까운 이웃이랍니다. 본죽 덕분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2022년 본죽 나눔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매월 한 번 100인분의 본죽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인근의 가맹점에서 배달이 오는데 쪽방 주민분들을 위해 매번 고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 가지 메뉴를 두 개로 나눈 포장으로 받으니 200그릇이나 됩니다. 쪽방 주민분들이 대부분 나이도 많으시고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별미로 드실 수 있는 전통죽과 영양죽을 드리면 정말 맛있게 드시고 좋아하십니다. 본죽이 오는 날 만큼은 마음 놓고 속 편하게 식사하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동대문 쪽방촌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님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온정을 전해요

2022년 4월 본그룹 사회공헌 블로그를 통해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족과 단절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 어르신들을 위해 댓글과 공감을 모아 영양죽을 매칭 기부했습니다. 제50회 어버이날을 맞아 5월 6일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주최·주관으로 '어버이날 효사랑 큰 잔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영양죽 350세트를 전달했습니다. 경로 효친의 전통 미덕을 기리고 취약 어르신들에게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씹는 게 불편하고, 소화도 잘 안되니까 밥도 뭐 그냥 대충 때우고 했죠... 꼭 필요한 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가져다줬대?!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양향수(가명)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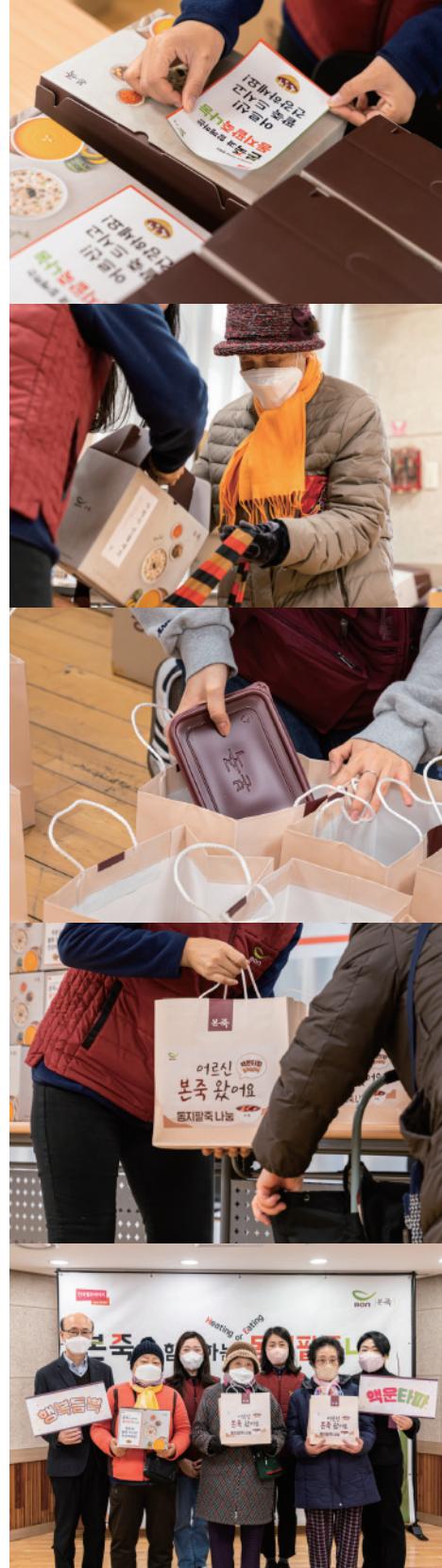


생계형 폐지수거 어르신을 위해 보양죽을 나누었어요

2022년 7월 본죽, 본죽&비빔밥 고객분들의 착한 소비와 기부를 매칭하여 나눔을 시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폐지 수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흑서기 보양죽 세트를 나누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지원했습니다. 무더위에도 생계를 위해 고된 노동을 지속하는 어르신들에게 보양죽을 나누어 작은 행복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소셜벤처 '끌림'과 함께 전국 15개 복지관의 100명의 폐지 수거 어르신에게 흑서기 보양죽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어르신께 연락을 드리고 계신 곳에 직접 찾아가서 보양죽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조리하기 간편한 죽과 다양한 반찬을 지원해주셔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평소 복지관 경로무료급식 한 끼로 하루를 버티시는 어르신들도 계신데 다양한 죽과 반찬 나눔에 정말 감사드려요!”

대동중합사회복지관 전병탁 팀장



어르신들에게 동짓날 팥죽과 온기를 나누어요

팥의 붉은색이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하여 예로부터 액운 타파의 상징으로 여겨진 동지팥죽!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2022년 12월 네이버 해피번 굿액션 캠페인 '어르신 동지팥죽 왔어요'를 진행했습니다. 네이즌의 캠페인 참여와 고객분들의 착한 소비를 매칭하여 추운 겨울을 외롭게 보내는 취약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동지팥죽을 나누었습니다. 동지를 앞둔 12월 16일, 한국헬프에이지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동지팥죽과 동지팥죽 상온죽 세트 1,030개 선물했습니다.

“어릴 때 엄마 옆에서 앉아서 동글동글한 새알을 만들던 기억이 나. 팥죽을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잖아. 내가 팥죽을 좋아해서 지금까지 건강한 것 같아. 하하하!!”

박다복(가명) 어르신

본도시락, 생일은 특별하게

모든 아이들의 생일은 특별하고 소중하기에 소규모 아동보호시설(그룹홈)
아이들의 생일을 맞아 도시락과 선물, 파티용품을 전달합니다.

풍성한 상차림과 함께 오롯이 주인공이 되는 생일파티의 경험은
아이들의 관계 개선, 정서안정,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본도시락

'생일은 특별하게'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첫 생일을 그룹홈에서 보내는 1살 막내부터 자립을 앞두고 마지막 생일을 함께하는 자립 준비 청년까지, 그룹홈의 모든 아이들이 본도시락과 함께하는 생일파티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그룹홈협의회

분기별 생일자 아동을
선정하고 파티를
지원해요



본도시락

아이들의 생일을 앞두고
임직원들이 준비한 생일
파티용품을 전달해요



가맹점

아이들의 생일파티에
정성으로 만든 본도시락을
배달해요



그룹홈

지원받은 비용으로 아이들의
생일선물을 준비하고, 즐거운
생일파티의 추억을
만들어요

22년
생일파티 아동

136
명

22년
생일파티 그룹홈

87
개소

22년
크리스마스 파티

52
개소

해피 크리스마스 파티

문화생활, 외부 활동의 기회가 많지 않은 전국의 52개 그룹홈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아 특별한 파티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마련한 간식 선물 덕분에 아이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특별한 생일파티 이야기를 전해요

“

다른 친구의 생일파티에도 질투하지 않아
그렇게 생일파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습니다.
생일파티를 통해 멋진 선물도 받고 선생님과
형들이 써준 풍선에 ‘사랑한다’는 말을 보고
감동한 것 같습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생일선물로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게 된
아이가 자신만의 물건이 생긴 것에 무척이나
감격했습니다.
그룹홈의 막내라 늘 형들과 같이 사용하는 게
많았던 터라 아이에게 이번 생일은 더 없이
소중한 날이 되었습니다.

“

다소 서먹서먹했지만 파티를
통해 그 서먹함이 조금은 풀린 듯
합니다. 축하해주는 동생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많이 먹으라고
토닥이고 챙겨주었어요.
이런 파티를 통해 그룹홈 가족
간에 따뜻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새해가 되면서 달력에 생일을 적어
놓고 날짜를 세어가며 생일을
기다렸어요.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은지 물으니 웃이라고 하여
함께 쇼핑하며 본인이 원하는
선물을 고르고 가족과 함께 풍선을
붙이며 행복한 생일을
보냈습니다.

“

그룹홈의 만형으로써 늘 드직한
첫째이지만, 이제 곧 자립을 앞두고
아르바이트하느라 여념이 없던
아이에게 특별한 선물과 추억을
전해 줄 수 있었어요. 떠나기 전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어요.



생일은 아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달콤한 순간입니다

킹스키즈 그룹홈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미취학 남자아동들입니다. 에너지 넘치고 각각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랑스럽고 소중한 친구들이 함께 밝고 건강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사랑으로 양육하는 킹스키즈 그룹홈 김예솜 선생님과 본도시락 생일파티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보았습니다.



킹스키즈 아이들은 본도시락과 함께 어떤 생일파티를 보냈나요?

킹스키즈 아이들 생일의 많은 순간을 함께 했지만 본도시락과 함께 한 생일은 빼놓을 순간 하나 없이 모두 특별하답니다. 미혼모 가정에서 유기로 인해 생후 10일이 되던 날 그룹홈에 처음 오게 된 아이의 첫들이 기억납니다. 품에 보듬어 안기도 조심스러웠던 신생아에서 이제는 성큼성큼 걸어 다니면서 모두에게 행복에너지를 뿐만 아니라 건강히 자라고 있는 아이가 22년 9월 첫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소중한 날, 본도시락 생일파티와 함께함으로써 풍성하고 따스한 첫 생일이 되었습니다. 모두의 축하를 받는 자리를 아는지 생일 축하 노랫소리에 맞춰 손을 흔들고 손뼉을 치며 그렇게 모두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도시락 생일파티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일'은 우리 아이들이 1년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달콤한 순간입니다. 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내 생일은 언제 또 와요?"하고 매일 질문할 정도이지요. 게다가 '파티'라는 것은 우리 킹스키즈 아이들에게 있어 가장 행복하고 신나는 일이랍니다. 본도시락 생일파티는 우리 아이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에 대한 감동과 더불어, 누군가가 나를 함께 응원하며 행복을 지지하여 주고 있다는 희망의 손으로 찾아와 아이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더 큰 세상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의 어려움으로 굳어진 마음과 상처 입은 아이들의 자아에 긍정적 가치와 자신감을 형성하여 주며 바르고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사회적으로 큰 지지체계를 이루는 긍정적 의미가 되었기에 본도시락 생일파티는 단순히 신나고 행복한 이벤트를 넘어 우리 아이들 일생의 순간 중 한편의 가슴 따뜻한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킹스키즈 그룹홈 김예솜 생활복지사

얘들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렴!

본도시락 울산혁신점 변원우 사장님은 매장 인근에 있는 울산중구사회복지관을 통해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으시다는 사장님의 따뜻한 나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울산까지 날아가 사장님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픈과 함께 기부를 하시게 되셨나요?

오픈하고 처음에는 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적응 기간 두 달 정도 보냈고요. 그 이후에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원래도 기부를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본도시락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메뉴 자체가 기부하기 좋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전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요즘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이 조금 힘들고 많다 보니까, 또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와이프나 일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요. 떡갈비와 돈까스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해서 그 두 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까스는 사실 단체하기는 힘들어요(웃음)

기부를 망설이고 계신 다른 사장님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근처에 사회복지관, 동사무소에 연락만 해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렵지만 작게나마 해보니 마음이 풍요로워지더라고요. 마음이 기쁘고, 자랑하고 싶고요. 도시락 먹는 친구들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겠습니다!

본도시락 울산혁신점 변원우 사장님



장기 실종아동을 함께 찾아주세요

2021년부터 장기 실종아동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슬리브에 실종아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의 정보는 매장을 통해서도 상시 노출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고객과 함께 해시태그 캠페인을 통해 매칭된 기부금(153만 원)을 전국미아실종아동찾기모임에 전달하였습니다.

우수가맹점 사장님과 함께 도시락을 나눴어요

우수가맹점 선발제도를 통해 선정된 우수가맹점과 본사가 함께 도시락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장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도시락은 매장 인근의 그룹홈,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배달되었습니다. 우수한 매장 운영만큼 마음도 따뜻한 우수가맹점 사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우수가맹점

본도시락 고덕삼성점	본도시락 오목교점
본도시락 광교중앙점	본도시락 울산범서점
본도시락 대구범물지산점	본도시락 이수점
본도시락 부천옥길점	본도시락 의왕역점
본도시락 삼일점	본도시락 전곡점
본도시락 서산점	본도시락 세종시청점
본도시락 양산증산점	본도시락 양산서창점
	본도시락 제주삼화점
	본도시락 충남당진점
	본도시락 화정점

하반기 우수가맹점

본도시락 광주첨단점	본도시락 울산범서점
본도시락 대구다사점	본도시락 이수점
본도시락 부천옥길점	본도시락 의왕역점
본도시락 삼일점	본도시락 전곡점
본도시락 세종시청점	본도시락 제주삼화점
본도시락 양산서창점	본도시락 충남당진점
본도시락 오목교점	본도시락 화정점



자립준비 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그룹홈, 양육시설, 위탁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온전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본도시락은 기아대책에서 주최하는 아동·청소년 포럼을 후원하였습니다. 보호 대상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멘토로 함께 하겠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이 겪는 생애 취약성을 개선하고, 온전한 자립을 도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룹홈과 자립준비청년을 꾸준히 지원하며 이번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주신 본도시락에 감사드립니다."

기아대책 국내사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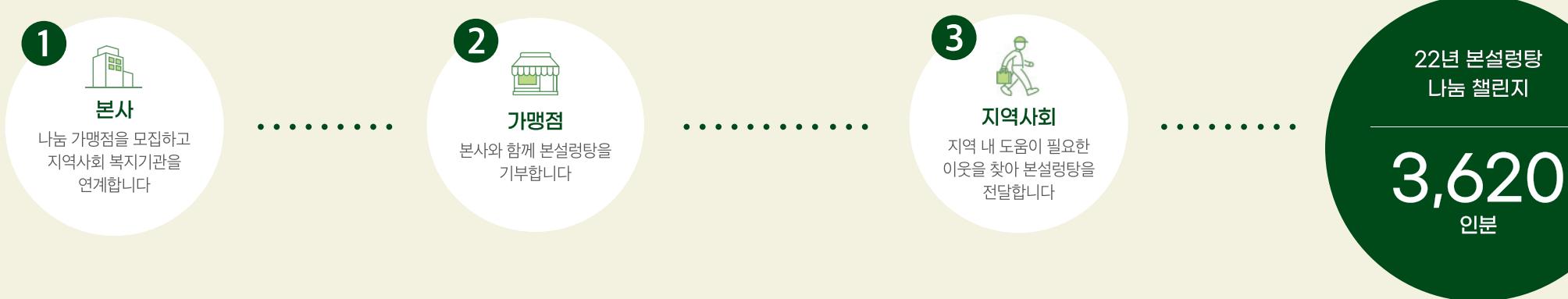
우리동네 본설렁탕 나눔 챌린지

본설렁탕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든든한 한 끼입니다.
우리동네 도움이 필요한 취약 이웃들을 위해
본설렁탕 가맹점이 나눔 챌린지를 이어갑니다.
본설렁탕 나눔으로 든든한 한 끼와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동네 본설령탕 나눔 챌린지'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나눔 챌린지는 2021년부터 시작되어 지난 2년간 20개의 본설령탕 가맹점과 함께했습니다.
본설령탕은 지역사회 이웃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눔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 어르신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식사를 선물합니다.



2022년 함께한 복지기관과 가맹점을 소개합니다

복지기관	가맹점
거룩한빛 운정교회	본설령탕 문정역점
성남위례종합사회복지관	본설령탕 분당야탑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본설령탕 안산선부점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본설령탕 양산증산점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본설령탕 위례점
인천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본설령탕 의정부금오점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본설령탕 인천루원시티점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본설령탕 전주전북도청점
초지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본설령탕 파주운정점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본설령탕 판교테크노밸리점



본설령탕 나눔 현장에서 보내온 이야기를 전해요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새뜰마을 주민돌봄센터

집안에서 넘어서 허리를 다치신 이호순(가명)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 식사를 챙길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마침 나눔 챌린지가 연계되어 영양가 풍부하고 간편하게 챙겨 드실 수 있는 설령탕을 전달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설령탕 전주전북도청점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저희 자영업자들도 또한 힘든 시기이지만 누군가는 더 힘든 누군가를 위해 나누어야 할 것 같고, 누군가는 따뜻한 사람 사는 온기를 남겨야 하기에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장 사정이 어려워 주저했지만 나눔에 동참하고 나니 마음에 힘이 솟아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겼습니다. 나눔 챌린지에 도움 주신 복지 현장의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입맛이 없었는데 설령탕도 나눠 주고 말벗까지 해주니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네”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설령탕뿐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전달할 수 있었던 나눔 챌린지였습니다.

성남위례 종합사회복지관

추운 겨울 뜨끈한 설령탕 한 그릇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셨다면 매우 좋아 하셨습니다. 설령탕 나눔을 통해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나눔에 동참해 주신 본설령탕 위례점에 감사드립니다.

인천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독거어르신 가구의 경우 기초 생활 수급비만으로는 월세, 관리비 등을 지출하면 식재료 구입비가 빠듯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혼자 밥을 잘 챙겨 드시지 못하시는는데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 설령탕을 나누었습니다. 작년 나눔 챌린지에 이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설령탕을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설령탕 의정부금오점

코로나 거리 두기 때문에 단절된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와 함께 우리동네 나눔 챌린지를 할 수 있어 보람 되었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에 관심 갖고 동참하겠습니다.



본설령탕 인천루원시티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아이들 가정에 본설령탕이 잘 전달되어 기쁩니다. 매년 저희 매장 직원들과 뜻을 같아해서 행복한 마음이 배가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닌 행복 바이러스가 많이 전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눔의 비결은 긍정과 감사입니다

싱그러웠던 8월 경남 양산에 다녀왔습니다. 본설령탕 양산증산점에서 우리동네 본설령탕 나눔 챌린지 16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나눔 챌린지 현장에서 김진아 사장님을 직접 만나고 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본설령탕 양산증산점은 우리동네에서 어떤 가맹점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희 매장이 있는 곳은 경남 양산시의 대표 신도시입니다. 젊은 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계세요. 남녀노소 다양한 분들께 건강식으로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그런 음식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접 나눔 챌린지에 참여해보니 어떠셨나요?

나눔에 대해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직접 하게 되니 설레었습니다. 특히나 한가위를 앞두고 든든한 설렁탕을 어려운 이웃분들께 나눌 수 있어 기쁘고 감사했어요. 저는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본설령탕 사장님들께 나눔 챌린지 독려의 한마디 해주세요

고객분들께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어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나눔에 직접 참여해 보니 설렁과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이런 기분을 저 혼자만이 아닌 우리 본설령탕 다른 사장님들도 다 같이 느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랍니다.

우리동네 본설령탕 나눔 챌린지 파이팅!

본설령탕 양산증산점 김진아 사장님



행복냠냠 베이비본죽

아기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이유식만
먹이고 싶은 엄마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따듯한 마음이
더 많은 아이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베이비본죽은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유식과 영유아 식품을 지원합니다.



'행복냠냠 이유식 나눔'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베이비본죽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소망하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획전과 함께 "행복냠냠 해피빈 굿액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해피빈 굿액션 캠페인 네이션 댓글



교창수희

아기들이 건강한 이유식을 먹고 몸이 자랄 때, 마음도 따뜻한 마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답글

2

Ipsi****

베이비본죽의 따뜻한 손길이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해줘 모든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지켜주셔서 모두 행복할 거예요. "베이비본죽 행복냠냠"을 응원합니다!

답글

3

하늘땅

우리 소중한 아기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베이비본죽처럼 아기들의 행복을 생각하는 기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베이비본죽과 함께 하는 행복냠냠 굿액션 응원합니다.

답글

4

카르페디엠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따듯한 마음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유식과 영유아 식품을 지원하는 베이비본죽의 행복냠냠 굿액션 나눔사업을 응원합니다.

답글

1

윤후의 행복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육조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게 된 윤후(가명). 응급처치 후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후 시각·청각을 모두 잃었으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되어 결국 뇌병변장애 1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윤후는 현재 세 살이 되었지만 자가 호흡이 되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끼고 생활해야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걷고, 뛰고,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시기이지만 윤후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윤후는 재활병원과 발달센터를 다니며 재활치료·인지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급비와 장애 지원금으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고 있습니다. 윤후가 커갈수록 써야 할 돈은 늘어가는데, 엄마는 윤후를 24시간 간호해야 하기에 직장도 구할 수 없어 앞으로가 더욱 걱정입니다.

윤후는 이미 일반식을 먹을 시기이지만, 아직도 7~8개월 아기들이 먹는 이유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이유식만으로 영양을 보충해야 하는 윤후. 엄마는 윤후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이유식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곁에서 윤후를 돌봐야 하는 엄마는 이유식을 만들 시간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매번 이유식을 사서 먹는 것도 엄마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밥을 잘 먹어야 힘을 내서 치료와 재활 과정을 잘 버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엄마는 늘 미안할 따름입니다.

윤후가 힘든 치료 과정을 견딜 수 있도록 맛있고 영양가 있는 베이비본죽 이유식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이 윤후와 엄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사회복지회 나눔지원팀 안수인 담당자



베이비본죽과 함께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

긍정양육이란?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1. 자녀알기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를 잘 살펴봐주세요.

4. 같이 성장하기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

7. 일관성 유지하기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주세요.

2. 나 돌아보기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5. 온전히 집중하기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 주세요.

8. 실수 인정하기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세요.

3. 관점 바꾸기

내 자녀의 '문제' 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 보세요.

6. 경청하고 공감하기

자녀의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와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9. 함께 키우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긍정양육 캠페인'을 시행합니다.
베이비본죽은 지난 2021년부터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기랑 플로깅하고 이유식 기부해요!

아기를 생각하는 만큼 지구를 지키는 일에도 진심인 베이비본죽은 <아장아장 지지특공대>를 통해 기부가 연계되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특공대 활동에 공감하고 동참해주신 덕분에 860만 원 상당의 이유식과 간식을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해 기부할 수 있었습니다.

플로깅 진행

3회

플로깅 참여

304회

이유식 후원

860만 원 상당



1

베이비본죽
지지특공대
모집

2

아기와 함께하는
플로깅

3

참여에 기부를
매칭하여 이유식이
필요한 곳에
이유식 후원

플로깅이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와 영어단어 조깅 (jogging)을 합쳐서 만든 합성어.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22년 지지특공대 활동 일지

22년 06월 : 환경의 날, 지지특공대 출범

22년 09월 : 행복두끼챌린지 × 지지특공대 플로깅 캠페인

22년 11월 : 정주희 기후캐스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플로깅

아장아장 지지특공대 참여자 후기



참여자 1 | 베이비본죽 고객

아이들이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다 보니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된다는 교육이 저절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설명과 퀴즈를 통해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참여자 2 | 지지특공대 가족

플로깅 이후 아가가 지지 보면 줍거나 엄마 쓰레기 버릴 때 같이 가거나 행동을 기억하고 이어가네요. 생활 속 습관으로 이어가는 건 엄마도 실천하고 아가가 성장하며 계속 대화하고 관심 가지도록 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응원합니다!

참여자 3 | 정주희 기후캐스터

지난 11월 19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베이비본죽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함께하는 <지지특공대> 플로깅 행사가 있었다. 지지특공대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지지 만지지 마” 할 때의 그 지지와 ‘지구를 지키자’의 지지이다.

플로깅 행사 직전, 내가 준비한 환경 퀴즈를 시작으로 약 한 시간 가량 진행이 됐는데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집개를 잡으며 쓰레기 to 주우려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던지, 결국엔 엄마 아빠의 뜻이겠지만은 아이에게 자연스러운 환경 교육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은 덤이 아닐까?

참여해 주신 엄마 아빠들, 아이들과 함께 지구도 지키고,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준비해 주신 베이비본죽,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며 주희일기 끝.

(출처: 인스타그램 @juheestory)



함께하는 나눔

결식부터 지역사회까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고객, 가맹점, 임직원,
기업,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본그룹의 나눔과 캠페인에 공감하고,
협력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나눔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아 릴레이 나눔이 이어졌어요

본그룹은 2022년 창립 20주년을 축하하며 임직원과 본죽, 본죽&비빔밥 가맹점 사장님과 함께하는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본죽인들의 따뜻한 참여와 나눔이 더해져 뜻깊었던 제20회 창립기념 나눔 캠페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룹홈 드림박스 캠페인

그룹홈에서 꿈을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41명의 임직원이 마련한 300만 원의 기부금에 회사가 300만 원을 매칭해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 협의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사랑의 헌혈 캠페인

소아암 환아를 위한 현장 헌혈과 헌혈증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41명의 본죽인이 참여해 85장의 헌혈증을 기부해 주셨고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을 통해 후원이 필요한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걸음기부 캠페인

본그룹 임직원이 모두 협력해 목표 한 걸음을 위해 걷는 걸음기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54명이 참여해 87,670,087보의 걸음이 모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된 정성박스 200개를 쪽방촌에 선물하고, 묘목 200그루를 노을공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스무살의 본죽, 본죽&비빔밥이 스무살 청년에게 전하는 응원

본죽, 본죽&비빔밥 20주년을 맞아 가맹점 사장님과 함께 결식우려 청년을 응원하는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202개 본죽, 본죽&비빔밥 사장님들과 임직원 기부금에 본사의 매칭 기부금을 더해 23,200,000원을 사단법인 본사랑에 전달하였습니다.

기부금은 사단법인 본사랑을 통해 116명의 결식우려 청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느라 건강한 식사나 규칙적인 식사가 어려운 청년들에게 든든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없이 만족스럽게 잘 사용 중이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설에서 먹던 짐밥이 많이 그리웠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 해소할 수 있었고요. 얼마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배고풀 일 없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행복합니다. 선뜻 베풀어주신 이 마음 절대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받은 마음을 다시금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받은 청년들의 후기



본도시락 10주년을 맞아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하였어요

본도시락은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기념하며 가맹점 사장님과 본사가 함께 자립을 앞둔 청년들에게 든든한 한끼를 지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눔 참여 매장

89 개

식사 지원 청년

34 명

총 기부금

1,000 만 원

집밥이 그리운 아이들에게 전하는 잘 차린 든든 한끼

본도시락 10주년을 맞아 가맹점 사장님들과 함께 그룹홈, 보육원에서 자립을 앞두고 보호종료를 앞둔 청년들에게 따뜻한 도시락 나눔을 진행하였습니다. 89개 본도시락 가맹점 사장님들의 기부금에 본사 매칭기부금을 더해 10,000,000원을 기아대책에 전달하였습니다. 기부금은 기아대책을 통해 선발된 청년들에게 전달되어 든든한 식사로 제공됐습니다. 나눔에 함께해 주신 본도시락 가맹점 사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퇴소 후 홀로 생활하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 '밥 먹었어?'라고 쟁겨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따듯한 관심과 경제적 부담으로 끼니를 거르지 않고 든든하고 건강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향해 도전하는 멋진 자립 준비 청년 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추천받아 총 34명을 선정하여 1인 25만 원 상당의 본도시락 기프트 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기아대책 강은해 간사



화재 피해 지역의 이재민들을 돋기 위한 긴급 지원을 하였어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긴급 지원

3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이어진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파우치죽과 단호박식혜를 전달해 이재민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지역에 위치한 본죽&비빔밥 가맹점과 함께 갑작스러운 큰 불로 식사가 어려운 지역 어르신, 장애인 가정에 긴급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영등포구 화재 지역 긴급 지원

영등포구에 발생한 화재 피해로 식사에 어려움이 생긴 취약계층에게 본도시락을 전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분들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되길 바라며 인근 본도시락 가맹점과 함께 긴급 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장 오픈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기부를 실천했어요



본죽&비빔밥 청주방서점

with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맛있는 죽과 비빔밥을 모두가 너무 반가워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격리 중이셨던 어르신들께 따뜻한 죽을 전달해 드려 기력 회복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죽&비빔밥 대전둔산을지점

with 응문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 내에는 아직도 다양하고 많은 취약 계층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역의 꾸준한 관심과 나눔으로 힘든 과정을 극복할 수 있다는 따뜻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나눔으로 취약 계층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죽&비빔밥 광운대역점

with 월계종합사회복지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재료와 반찬 구매가 힘든 분들과 건강상의 이유로 조리 활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본죽 가정간편식을 지원했습니다. 본죽&비빔밥 오픈 기념 사회공헌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본죽&비빔밥 회현역점

with 청파노인복지관

일반 식사가 어려우신 분, 치아가 안 좋으신 분,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 등 많은 어르신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 어르신들께 죽은 언제나 선호하는 음식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참 기뻐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본죽&비빔밥 청주강서점

with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우리 복지관은 지역사회에 복지가 흐르게 하여 약자도 살 만하고 약자도 더불어 사는 곳, 누구나 정붙이고 살만한 곳이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죽과 비빔밥 나눔의 실천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복지를 실천한 모델이며 그로 인해 약자도 살만한 지역복지가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기교육과 함께 지역사회에 따듯한 식사를 나누었어요

본아이에프는 가맹점 정기교육을 통해 본사와 가맹점 간 브랜드 정체성과 미래 방향성을 함께 정립하고 한식 프랜차이즈의 전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재개된 정기교육을 통해 전국의 본죽, 본죽&비빔밥, 본도시락 가맹점 사장님들과 함께 조리 교육 과정 중 정성으로 조리한 죽, 덮, 샐러드 도시락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조리에 애써주신 가맹점 사장님, 감사합니다.



본도시락

본도시락 정기교육 조리 교육 과정에서 나온 '깍둑 스테이크 샐러드'와 '갈릭새우 샐러드' 2종을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정성으로 조리해 주신 사장님들 덕분에 라ップ을 앞둔 청년들, 노숙인 무료 급식소, 노인복지센터 등 8개 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 신선하고, 건강한 한 끼를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가맹점
376 개

기부수량
739 인분

기부한 복지기관
8 개소

본죽, 본죽&비빔밥

본죽, 본죽&비빔밥 정기교육에서는 우리의 본질적 가치인 '맛'의 완성을 위한 전문가 과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실습을 통해 나온 결과물인 죽과 비빔밥 덮을 지역사회 무료 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식사 나눔이 필요한 곳곳에 전달하였습니다.

참여가맹점
1,396 개

기부수량
6,786 인분

기부한 복지기관
54 개소

따뜻한 응원을 모아 식사와 함께 전달합니다

본그룹 사회공헌 유튜브 채널인 꼬르륵에서는 응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 따뜻한 식사를 배달합니다. 많은 분의 응원 댓글과 참여를 모아 응원과 위로가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응원 배달 캠페인'을 소개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쉼 없는 출동으로 애써주시는 소방관들을 위해 7개 소방서에 300만 원 상당의 본도시락을 전달하였습니다.

"주중에는 조리를 해주시는 이모님이 계시는데 주말에는 소방관들이 직접 식비를 내고 시켜 먹고는 합니다. 사실은 그마저도 점심시간에 출동이 많아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식사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고생하는 동료들과 밥 한 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서 소방서 박승균 소방위



그룹홈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23학년도 대입 수험생 56명에게 불낙죽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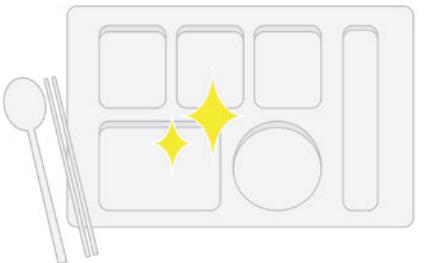
"19살이 되고 가장 두렵고, 막막했던 건 수능과 자립이었습니다. 대학을 가야 한다는 압박감과 흘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저를 점점 옥죄었습니다. 본죽으로 든든히 속도 채우고, 제게 꼭 필요했던 목도리도 샀습니다. 수능을 앞둔 제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응원이 아닌 격려였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룹홈 고3 수험생



함께해요 본우리집밥 비움데이!

단체급식 전문 브랜드인 본우리집밥은 잔반을 감량하기 위한 캠페인의 목적으로 먹을 만큼 담고, 남김없이 깨끗하게 비우는 '비움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환경의 날을 기념해 20개 사업장에서 '비움 캠페인'을 진행해 전월 대비 14% 정도의 잔반량이 감소하였는데요. 본우리집밥은 급식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음식쓰레기 줄이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린히어로
캠페인

IL MAZZIO x happy habit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마지오와 해피해빗이 다회용컵 운영을 함께합니다.

이렇게 동참해 주세요!

- ① 음료 주문 171당 보증금 1,000원 결제
- ② 다회용 컵은 무언 반납기에 반납
- ③ 현금 환불 또는 해피해빗 앱 포인트 적립

해피해빗 앱 다운로드
앱스토어에서 '해피해빗' 앱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해피해빗' 앱
혹은 해피해빗 앱 다운로드 가능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세요!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세요!

나눔
함께하는
우리길

본우리집밥의 카페 브랜드인 일마지오의 본그룹 본사점에서는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고, 다회용 컵 서비스를 도입하는 그린히어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달간 진행된 캠페인 기간에 총 2,727회의 텀블러가 사용되었고, 5,941회의 다회용 컵이 대여되어 일회용 플라스틱컵 8,668개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었습니다.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임에도 참여해 주신 임직원, 고객분들 덕분에 기부금 2,157,000원을 환경재단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죽인

본그룹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나눔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었습니다.

대면 봉사활동부터 비대면 봉사활동까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따뜻한 일 년을 보냈습니다.



2022년 본죽인 봉사활동

활동명	참여인원(명)
목소리 재능기부 봉사활동	90
영등포 입양거리 플로깅 봉사활동	38
안양천 플로깅 봉사활동	10
뚝섬 플로깅 봉사활동	5
가족과 함께하는 플로깅 봉사활동	51
노을공원 묘목심기 봉사활동	35
안마봉 만들기 봉사활동	79
토마스의 집 무료배식 봉사활동	7
레인보우 유기견 보호 봉사활동	5
창립 20주년 걸음기부 캠페인	254
창립 20주년 사랑의 헌혈 캠페인	44
창립 20주년 드림박스 기부 캠페인	41
배리어프리 자막입력 봉사활동	25
그룹홈 산타 주머니 만들기 봉사활동	141
베이비본죽 모빌 만들기 봉사활동	13
동지팥죽 사랑 나눔 봉사활동	5
어르신을 위한 엽서 컬러링 봉사활동	56
지역아동센터 행복한 요리스쿨	8
제10회 본그룹 행복나누미 캠페인	55

누적 참여인원

962 명

누적 참여시간

18,885 시간

참여와 봉사로 나눔의 동심원을 넓혀갑니다

본그룹의 미션은 '본으로 행복을 돋는 사람들'입니다. 한 해 동안 봉사활동, 헌혈, 기부 등 다양한 나눔을 통해 전국 곳곳에 따뜻한 나눔을 전한 본죽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목소리 재능기부 봉사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한글 공부와 정서 지원을 위한 목소리 재능기부 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서 1권당 3명의 본죽인이 참여해 총 30권의 음원 도서를 완성하였습니다.

"평소 목소리를 활용하여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취미여서 행복, 그 자체인 봉사활동이었습니다! 팀원들의 못 보던 새로운 모습을 알아가는 시간이어서 재미있었고,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한글 공부와 정서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말씀과 표현력에 더욱 신경 쓰는 등 즐거움과 긴장감이 공존했던 두근두근 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아이에프 구매팀 조원 대리



입양 거리 플로깅 봉사

영등포구 본사 인근의 거리를 입양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덕분에 미화원의 손이 닿지 않는 구석구석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 본죽인들의 집인 YP센터 청소는 당연히 집주인인 우리 본죽인들이 해야겠지요? 회사 앞을 청결하게 하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주위를 깨끗하게 하면서 지역사회에 우리 회사를 알리기도 하고, 정말 깨끗해진 거리를 보고 있노라면 그동안의 저를 반성해 보기도 했습니다. 플로깅을 통해 건강도 찾고 친목도 하고 거리도 청소하는 일석삼조의 즐거움을 맛이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본아이에프 구매팀 김대환 팀장



쪽방촌 무료급식 봉사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대면 봉사 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에 위치한 무료 급식소를 찾아 노숙인들을 위한 배식 봉사에 동참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대면 봉사활동이 재개되었습니다. 영등포 쪽방촌에 위치한 무료 급식소를 찾아 노숙인들을 위한 배식 봉사에 동참하였습니다. 식사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봉사는 금방 끝났지만 이런 봉사는 처음인지라 정말 정신이 쑥 빠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시설을 20년 이상 운영하셨다는 신부님과 다른 봉사자분들이 진심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사명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일 텐데 당연하고 일상적인 모습이었던 모든 분들에게서 생색내지 않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본아이에프 교육팀 윤시우 대리



유기견 돌봄 봉사

용인에 있는 레인보우 쉼터에서 유기견 돌봄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임직원들의 참여로 마련한 100만 원 상당의 사료도 전달하였습니다.





노을공원 묘목심기 봉사활동

노을공원 시민모임과 함께 연 2회 노을공원에 묘목을 심습니다. 서툴지만 푸르게 자랄 숲을 그리며 정성을 다해 묘목을 심었습니다.

"날씨는 맑고, 공원은 평화롭고 모든 것이 좋았던 하루 같습니다. 아들과 함께 한 첫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아들은 봉사활동이라는 것도 모르고 나무 심으러 간다는 것에 들여서 아침부터 옷도 스스로 입고 빨리 가자고 하더군요. 애벌레도 잡고, 지렁이도 보고, 리어카도 재밌게 탔네요. 한창 뛰어다닐 나이라 민폐가 된 건지 싶지만, 회사 동료분들과 가족들과 함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아이에프 가맹1팀 김종호 팀장



어르신을 위한 컬러링 엽서 제작

본푸드서비스 본우리집밥 워크숍에 참여한 지점장님들과 함께 취약 어르신에게 전달할 알록달록 예쁜 컬러링 엽서를 만들고 따뜻한 한 마디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FS부문 지점장 하반기 워크숍에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점장님들께 이 시간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는 점장님들의 말을 들으니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모두가 좋은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한 거 같아요. 작은 마음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푸드서비스 인재개발실 이가희 과장



배리어프리 자막입력 봉사

청각장애인, 난청인을 위한 배리어프리 자막입력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관람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수화로 배우는 루돌프케이크 프로그램까지 망설임 없이 참여했습니다. 선물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인근 대형 마트에서 함께 과자를 사며 마치 어린이들이 된 양 놀았기도 하고 함께 포장을 하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처음 자막 봉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어렵나?'라고 편하게 생각했다가, 모든 소리를 다 풀어내야 하는 일입을 깨닫고 엄청 엄청 집중해서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그동안 불편한 상황을 수도 없이 겪었을 친구들을 생각하니 더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배리어프리라는 말처럼 장벽 없는 세상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아이에프 영업지원팀 최도희 대리



그룹홈 산타 봉사활동

크리스마스에도 별다른 외식 없이 일상을 보내는 그룹홈 아이들을 위해 서프라이즈 선물로 특별한 간식 꾸러미를 만들었습니다.

"조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싶다고 생각했었기에 망설임 없이 참여했습니다. 선물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인근 대형 마트에서 함께 과자를 사며 마치 어린이들이 된 양 놀았기도 하고 함께 포장을 하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쓴 시간과 돈은 미미 하지만 그 마음이 모여 우리 사회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느낀 감사한 활동이었습니다."

본아이에프 본죽 운영1팀 김정옥 주임

한마음
행복나누미
캠페인

한마음으로 이웃들을 위해 쌀을 기부합니다



본그룹 행복나누미 캠페인은 전국의 가맹점 사장님과 임직원이 함께 취약계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쌀나눔 캠페인입니다. 2013년 몇몇 본점 가맹점에서 사장님들이 자발적으로 쌀을 모아 기부한 나눔을 확대하여 매년 연말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기부된 626포대(12톤) 쌀은 사단법인 본사랑을 통해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 털북 청소년, 다문화가정, 장애인, 무연고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2년 전달한 쌀의 양

12.5 톤(t)

누적 전달한 쌀의 양(13~22년)

1,107 톤(t)

본사모
사랑 죽 릴레이
캠페인

본사모 사장님들이 마음을 전합니다



본을 사랑하는 모임, 본사모

본사모는 가맹점과 본사의 상생을 목표로 2012년 만들어진 가맹점 사장님들의 모임입니다. 가맹점의 의견을 모아 본사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는 본사모는 매년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사모 사랑 죽 릴레이 캠페인?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사랑 죽 릴레이 캠페인'은 본사모의 대표적인 나눔 활동입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주변 이웃들을 찾아가 식사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직접 죽을 만들어 전달하는 활동은 어려워졌지만 나눔을 중단하지 않고, 조리된 죽과 반찬, 상품권을 나누는 일을 지속하였습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을 통해 감동을 전하고 싶다는 본사모 사장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2년 본사모 나눔 횟수

5 회

세상의
온기와 희망,
본사랑

TRANON IDADA:



본사랑
후원참여

2009년 설립된 보건복지부 인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굶주리고 가난한 이웃들의 변화와 행복을 돋기 위해
섬김, 나눔, 세움의 정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랑 나눔

세계아동꿈드림 지원 사업

본사랑은 부모 없이 고통 중에 있거나 가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의 아동들을 위해 1:1 결연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굶지 않고, 배우며, 치료받고, 꿈을 꾸도록 사랑으로 섭깁니다.

22년 지원 국가
8 개국

지원 아동
2,402 명



본사랑죽 지원 사업

본사랑죽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만성적인 영양실조 개선을 위해 본사랑이 특별히 개발한 분말 형태의 죽입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의 어르신, 장애인 등 결식 우려 취약계층에 지원해 영양상태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우크라이나 긴급구호를 위해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22년 지원
8 톤(t)

지원 기관
17 개



국내
사랑 나눔

제9회 사랑의 김장 나눔

저소득 가정의 추운 겨울만큼이나 쓸쓸한 밥상을 채워줄 든든한 반찬 김장 김치를 나눕니다. 2022년 12월 전국의 취약계층 500개 가정을 모집하여 김치를 직접 보내드렸습니다.

22년 김장 나눔
7 톤(t)

지원 가정
500 개



지역사회 음식 섬김 사업

2021년 5월 어린이날 보육원을 시작으로 음식 섬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육원, 탈북민 학교, 지역사회 섬김 급식소 등 총 11개 복지 기관과 시설에 매월 1회 1,100여 인분의 도시락과 음식을 정성으로 나눕니다.

22년 지원 횟수
12 회

지원 기관
11 개



22년 사회공헌 하이라이트



본그룹
22년 사회공헌 연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본아이에프(주)

취약 노인 보호 사업인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에 참여하여 독거 어르신 등 취약 노인 지원
및 보호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패를 수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본아이에프(주) | 순수본(주)

본아이에프(주)와 순수본(주)은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승인받았습니다.
※ 본아이에프(20-22년), 순수본(22년)



국회의원 표창 본아이에프(주)

영등포구 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물품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등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영등포구 김영주
국회의원으로부터 표창을 수여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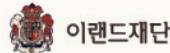
CSR필름페스티벌 상생성장 부문 동반성장위원회상

가맹점, 본사,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협력한 내용을 담은 영상
필름을 통해 상생성장 부문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눔 협약 파트너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이랜드재단



행복얼라이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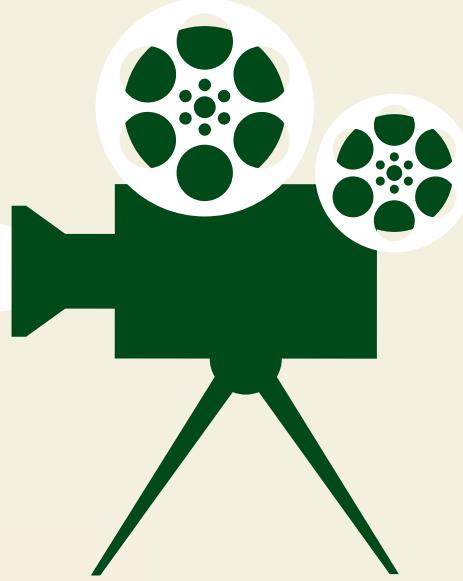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orean Foundation for Support of the Senior Citizen in Need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Korea Council of Group home for Children & Youth

UD 유디치과



밥 먹는 사이

<밥 먹는 사이> 책자에 대한 상업적 이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발췌하여 사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2023년 3월 6일

관련 문의 | bonlove@bongroup.co.kr

발행인 이성진

발행처 본그룹 브랜드가치관리실

기 획 장아리, 흥은아

디자인 한송이, 이호성

표지 사진 STUDIO B



본죽 본죽 & 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본우리반상
베이비 본죽 본죽 & 비빔밥 본우리집밥 본사랑 BON

EAT TOGETHER FOR GOOD